광주 광산구 일부 주민 '샤워기 필터 변색' 불안 호소



최근 복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광주 광산구 일부 주민들이 갑작스럽게 샤워기 필터가 변색되고 수돗물 사용으로 몸에 이상이 생겼다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은 네이버 카페 '선운지구 커뮤니티'(왼쪽)와 당근마켓 '동네생활'에 게시된 샤워기 필터 사진.

지난 17일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글 잇따라···"몸에 붉은 반점도" 市상수도본부 "망간 유입·희석 조치"

정확한 원인 파악 위해 추가조사 예정

최근 복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광주 광산 구 일부 주민들이 갑작스럽게 샤워기 필터가 변 색되고 수돗물 사용으로 몸에 이상이 생겼다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20일 네이버 카페 '선운지구 커뮤니티'에는 '왜이럴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었다. 지난 17일 오후 10시41분께 게시된 이 글의 작성 자는 "사워 한 번에 새 필터가 변했다"며 "녹물 로 씻은 느낌"이라고 밝혔다.

게시물에 첨부된 사진 속 필터는 두루마리 휴지 심이들어있다고착각할정도로탁한 갈색이었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2천500회를 넘는 조회수 를 기록한 이 글에는 45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복수의 누리꾼들은 "우리 집도 그렇다"고 성 토했다.

지난 18일 오후 12시54분께 같은 커뮤니티에 올라온 '물색깔'이란 글의 작성자는 "변기안 물 색깔이 누런데 필터도 그렇다"고 토로했는 데, 여기서도 누리꾼들은 같은 반응을 보이며 남구 효천1지구 등 다른 곳도 상황이 비슷하다 고 전했다.

이러한 내용의 글은 다른 커뮤니티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광산구 신흥동 인증을 받은 한 누리꾼은 이날 당근마켓의 '동네생활'에 "광주 상수도 이상하 냐"며 "물을 끓여먹고 샤워도 하는 데 몸이 가렵 고 이상하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산정동 인증자도 "우리 막내아이도 이유 없이 자꾸 가렵다고 하고 둘째는 붉은 반점 같은 게 올라온다"고 댓글을 달았다.

이 같은 불안과 이상 현상을 호소한 주민 중 일부는 실제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주암댐 하층에 있는 광물질 중 '망간 (Mn)'이 물과 함께 상수도로 유입돼 나타난 현상"이라며 "상수도 상 망간의 농도는 0.05mg/L 이하로 관리하고 있는데,지난 17일 순간적으로 0.045mg/L까지 치솟아다음 날 바로 희석 물질을 투입하는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기온이 갑자기 낮아지면서 아래에 있던 망간이 위로 떠올라 일시적으로 농도가 높 아진 것 같다"면서도 "최근 몇 년간 나타나지 않 았던 현상이라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추가 조 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날까지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건조치전 상수도로 들어온 물을 사용하는 데 따른 현상 같은데, 망간의 농도가 평상시보다 높다고 해 서 피부 등 신체 이상을 불러일으키진 않는다"며 "앞으로도 발생하는 문제에 신속하게 조치해서 시 민들이 불편이나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 겠다"고 강조했다. /서형우수습기자

檢, '뇌물의혹' 국회의원 보좌관에 '징역 12년'

건네준 사업가는 3년 구형 내년 1월16일 선고 예정

지역 사업가로부터 국가 보조금 사업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 는 의혹을 받는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중형 이 구형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와 사업가 B씨에 대 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A씨는 B씨로부터 국가 보조금 지급 사업 선정에 도움을 주는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선 재판에서 B씨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 남지역 모국회의원 보좌관인 A씨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실제 도움을 받았 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반면 A씨는 뇌물이 아닌 차용금이었고 금액 자체도 1억원이 아닌 5천만원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 같은 태도를 바탕으로 이날 검찰은 A씨에 대해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에 의해 명백히 인 정됨에도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12년과 벌금 3 억원, 1억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B씨를 상대론 자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후 진술에서 B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A씨 측은 공소 사실을 반박하고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해 1월16일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계획이다. /안재영기자



"캄보디아등 동남아지역 여행주의"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취업사기를 비롯해 감금 피해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20일 광주 북구청 민원실 모니터에 '피해 관련 지역 여행이나 방문 시 주의' 문구가 송출되고 있다. /김애리 기자·조영권 인턴기자



Al가 광주매일신문을 똑똑하게 읽어줍니다.

광주시민 청구 尹 손배소송 무기 연기

광주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청 구한 손해배상 소송이 무기한 연기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25단독 재판부는 광주시민 23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 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기일을 변경했다.

당초예정된기일은21일이었으나추정으로바뀌었다. 추정(추후 지정)은 재판부가 재판을 재개할 수 있는 상태까지 일시 정지하는 것을 의미한다.사 유는 '형사사건결과 대기를 위해서'로 파악됐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는 중인데, 법조계에선 다음해 1월 선고를 예상하고 있다. 이에 광주 지역 손해배상 소송 역시 다음 해는 돼야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재영기자

지하철 공사장 인근 4중 추돌 4명 부상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현장 인근 도로에 서차량 4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9분 께 북구 일곡동 일동중학교 앞 교차로에서 A (62)

께 북구 일곡동 일동중학교 앞 교차로에서 A (62) 씨가 몰던 15t 덤프트릭이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 차를 추돌했다. 그 충격으로 승용차는 앞서 있던 택시를, 택시는 다시 냉동탑차를 들이받았다.

연이은 사고로 승용차와 택시 운전자 등 4명이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고수습의 여파로 2시간가량 통제되면서 출근 시간대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다. /윤찬웅수습기자

70대 부친에 둔기 휘두른 40대 구속

"오래전부터 아버지가 무시" 진술

둔기를 들고 70대 아버지를 찾아가 폭행한 40 대가 구속됐다.

20일 해남경찰서에 따르면 특수폭행 혐의를 받는 A (4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발부 받았다.

앞서 A씨는 지난 17일 오전 7시50분께 해남군한 주택에 사는 아버지 B(70대)씨를 찾아가 야구 방망이로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팔과 다리 등을 다친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 한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 치료를 받아 생명에 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부자는 인접한 곳에서 따로 살고 있는데, A씨는 아버지가 오랜만에 귀가했다는 소식을 듣고 둔기를 소지한 채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오래 전부터 아버지에게 무시를 당해 갈등을 겪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남=박필용기자·안재영기자

해남서 돈사 화재…돼지 1천여마리 소사

해남 한 돈사에서 난 화재로 돼지 1천여마리 가 소사해 6억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20일 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 시6분께 해남군 현산면 한 돼지 축사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화재는 소방 당국에 의해 신고 접수 3시간여 만인 오후 11시11분께 완진됐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축사 13개동 중 3개동이 전소됐고 그 안에 있던 돼지 1천335 마리가 폐사 처분돼 소방 추산 6억5천100여만원 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안재영기자



+